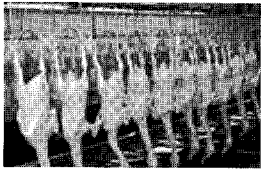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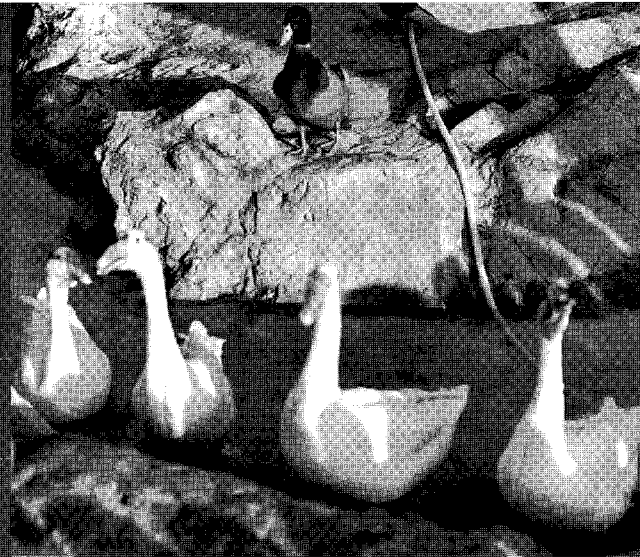


출처 <http://www.worldpoultry.net/news/arabs-up-consumption-of-brazilian-duck-meat-id4356.html>

아랍, 브라질산 오리고기 소비증가



브라질의 산업 및 해외무역부에 따르면 브라질 오리고기의 아랍국가 수출

량이 US\$ 15,900(2008년 1월~8월)에서 US\$24,900(2009년 1월~8월)으로 증가하였다. ANBA의 보고에 의하면 아랍국가에서의 수출수익은 56%증가하였고 수출량 또한 573.5톤에서 889.2톤으로 55% 증가하였다.

Santa Catarina에 위치한 Villa Germânia사는 판매신장에 큰 역할을 하였다. Marcondes Aurélio Moser 이사는 수출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작년까지 Villa Germânia사가 진출하지 못하였던 사우디 시장의 진출이라 설명한다.

사우디 이외에 브라질 오리고기를 수입하는 다른 중동국가들로는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예멘,

요르단, 오만 등이며 이중 아랍에미리트의 수입량이 가장 많다.

Moser 이사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아시아인들이 해당지역 오리고기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한다. 이 오리고기는 호텔과 식당에 납품되고, 일반 시장에 유통되는 양은 크지 않다고 전했다. Moser이사는 중동으로 수입되는 오리고기 중 10%만이 지역주민에 의해 소비되고, 약 60%의 오리고기가 아시아인, 나머지 30%가 호텔이나 식당에서 소비된다고 설명했다.

Villa Germânia사는 대략적으로 오리와 닭을 포함하여 하루에 8,000수 정도 도마이 가능하다. Moser 이사에 따르면 이 생산량의 3분의 2가 수출되는데 아랍뿐만 아니라 오리고기는 일본, 홍콩 그리고 뉴칼레도니아와 같은 태평양의 섬 국가에도 수출된다.

